

종합

광주·전남 '갈라서는 부부' 는다

작년 7366건 ... 6년만에 증가세로 반전 40대 많아 ... 외국인 처와 이혼도 늘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이혼 건수가 6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주·전남 모두 동거기간이 40대 부부의 이혼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도 꾸준히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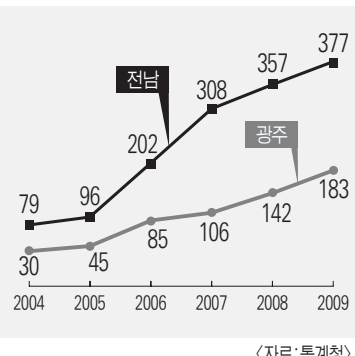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9년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이혼 건수는 3076건으로 전년보다 240건(7.8%)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이혼 건수가 269건(6.8%) 늘어난 4290건을 기록했다.

4336건으로 정점을 이뤘다가 2008년 2836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다시 이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모두 동거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거기간이 15~19년 사이인 40대 부부의 이혼 건수가 광주는 554건으로 1년 사이 109건(24.5%)이나 증가했으며, 전남은 103건(18.9%)이 늘어 649건이나 됐다.

광주지역 이혼부부의 주된 사유는 성격차이가 1432건(46.5%)으로

■ 광주·전남 외국인 아내와 이혼건수



가장 많았으며 경제문제가 481건(15.6%)으로 뒤를 이었다. 배우자의 부정도 276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성격차이(1890건)와 경제문제(564건)가 주된 사유로 꼽혔다. 이혼한 부부의 평균 연령은 광주의

경우 남편이 43.83세, 아내가 40.38세였으며 전남은 남편이 43.89세, 아내가 39.62세였다.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부부의 이혼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은 2004년 79건, 2005년 96건, 2006년 202건, 2007년 308건, 2008년 357건, 2009년 3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도 지난해 183건으로 지난 2004년 30건에서 5년 사이 153건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들어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중년 이혼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원 30여명이 21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중 발생한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색LED 발광효율 30% 향상

광주과기원서 원천기술 개발

정건영 교수 연구팀

국내연구진에 의해 차세대 조명 광원인 '청색LED'의 발광효율을 대폭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과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광주과학기술원 정건영 교수팀이 '청색 LED'의 발광 효율을 최고 30% 이상 증가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LED에 비해 전기적 특성은 저하시키지 않고 산화아연 나

노막대의 '광도파로(빛이 지나가는 길)' 현상에 의해 30% 이상 발광효율을 증가시킨 것이 핵심이다.

LED는 백열등, 형광등과 같은 저효율 조명과는 달리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아 최고 9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까지 국내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매년 160억kW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고, 68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냉해 피해보상 촉구

전농 광주시 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2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상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번 불장마로 시설하우스 작물에 곰팡이가 창궐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수경과 착과 불량에 심해 과채류가 상품성을 잃어 열매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광주시는 농가의 피해를 기본소득 이상으로 보전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

저출산 추세 지속 2500년 국내 인구 '0'

작해 2050년에는 올해의 54%에 불과한 129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인데, 성장률 전망치 계산에는 2001~2005년 OECD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32%포인트 감소했던 상관관계를 적용했다.

연남기자 emlee@kwangju.co.kr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하면 2100년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수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핵심 생산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보고서에서 국제연합의 합계출산율(15세 여성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상

하는 신생아 수 비율) 전망을 이용해 2051년 이후 남북 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남한의 한민족 인구는 2468만명으로 올해 인구(4837만명)의 절반으로 축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00년 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명으로 축소되고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노동시장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

빛의 만평

- 김중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았더라

"10월 F1대회 이상없다"

카우프만 대표 VIP전용 관람석 건설현장 점검

F1 경주장대 VIP전용 관람공간인 패독클럽(Paddock Club)을 총괄하는 올스포츠 매니지먼트사(All Sports Management) 대표가 영암시의 패독클럽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정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패독클럽 총괄 기구인 올스포츠 매니지먼트사 이사벨 카우프만(Isabelle Kaufmann) 대표 등 관계자들이 영암 F1경주장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10월 대회 개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주장 그랜드스탠드 건너편에 설치되는 대회 관계자·VIP 전

용공간인 패독클럽 시설의 건설현장을 살피고 관련 시설물이 차질없이 건설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패독클럽은 F1팀이 직접 초청한 고객이나 관측을 위해 기업들이 초청한 고객들을 위한 별도 관람공간으로, 개인이 관람권을 살 경우 1인당 500만원 이상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최 고급 라운지 시설이다.

영암시에서는 그랜드스탠드 건너편 경주장 차량 정비 공간인 피트빌딩 2층에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연이은 교육 비리 국민에 사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성명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계가 양자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실수를 범해 왔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꾸짖음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높았기에 주는 것으로, 송구

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 어떤 비리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투명하고도 경쟁력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협의회는 "인사비리, 급료수수, 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고 추징 및 불법 찬조금을 일질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남기자

"시·도교육위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 경력 안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에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연남기자

합동인수합병 FAX 221-9500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사건번호 : 2010년 4월 480
사 회 자 : 임학재(781215-1828511)
회 처 주 소 : 광주 광산구 월계동 784-2
서리아파트 105-308

등기기준지 : 광주 서구 서동동 616
위 임 학재의 상속에 대한 상속인은 민면 제 1028호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면 제 1028호(세관청에 대한 경고, 회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된, 신고기간(양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4월 22일
공 고 인 : 이금화, 임승민, 김지수
한정승인수리인 : 2010년 4월 13일
공고기간 : 2010.04.22 ~ 2010.06.21
신 고 처 : 광주 광산구 월계동 784-2
서리아파트 105-308
이금화(010-9475-3448)

사원모집

본사에서는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편집국	여	0명	포토샵 가능자
전산직	남	0명	연령제한 없음
광고영업	남	0명	
	여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전형방법 및 접수

- 서류전형 및 면접
- 우편접수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2번지 광주일보사 광고마케팅국

서류 제출기한

- 2010년 4월 30일 까지
- 문의전화 : 062)227-9600
- 010-2035-3932

함평 다이내스티 C·C 사원모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진디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부서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영지원	여 0명	프린트	경력, 신입
코스관리	남 0명	골프기운전 및 기타	경력, 신입
식음료팀	남,여 0명	조리사, 웨이터, 웨이츄러스, 주부사원(30대)	경력, 신입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 가속사 제공 / 1월3식 제공 / 4대보험
- 년차휴가 / 주1회 휴무제공
- 하계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 등 기타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전남 함평군 학교동 곡창리 신1-6번지 경영지원팀
- 팩스 접수 : 061-320-7710
- E-mail 접수 : mannervang@hanmail.net
- 문의전화 : 061-320-7716(최관식)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무인텔 매각공고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특장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

금산공인중개사

T.881-5888 H.011-601-5354 (서경주역 건너 순천도로번)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4면 광로면)
- 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최저 1300만원 이상 발행
- 공용 복합 APT 주차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요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경유 910㎡
- 특징: 주유간혹시설 허가 특, 도로경유 허가 특, 미평에서 광주상행선 철주유소부지, 2010년 8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입주유소
- 매매가 : 1억 7천만원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 110-8004-5900 (연세 서해안, 새만금 전문회사)

▶ 편성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 최저 1300만원 이상 발행
- 용자 2억 이상 가능
- ▶ 투자용 편성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 를 갖춘 비디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함
-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 하고 한가로움 전원 주택지
-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 새만금 관망시대 임박으로 편성부지 광주지역 원동부지의 끝판 대왕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25% 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보수로 지금이 투자적기!